

국제대학원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04년 10월 12일 (화) 12:00-13:30

서울대 국제대학원 140-1동 507호

- ◆ 주제 : 日韓地域間交流について
- ◆ 강연자 : 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次長
吉川**寿**明 (きっかわ としあき)

◆ 강연자 약력 :

氏 名 吉川**寿**明 (きっかわ としあき)

生年月日 1960年8月10日

最終**学歴** 東京都立**大学** **工学部** 土木**工学科**

職 **歴** 1984年4月 鳥取県職員採用

1997年4月 鳥取県**総務部****国際課**主幹

1997年6月 韓**国**江原道派遣勤務

1998年4月 鳥取県土木部都市計**画課****区画**整理係長

2000年4月 鳥取県**総務部****国際課****国際交流**第一係長

2002年4月 鳥取県**企画部**交通政策課**企画**員

2003年4月 (財)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次長

◆ 세미나 요약

한영혜 교수님 : 지난주는 미야지마 공사님과 함께 국가 차원의 한일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주는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 (CLAIR) 한국 사무소의 吉川 차장님을 모시고, 지역 레벨에서의 한일교류와 한일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吉川 : 우선, CLAIR라는 단체에 대해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CLAIR는 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합동조직으로 1984년 설립되어, 도쿄에 사무국과 본부를 갖고 있으며 세계 7개국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포르, 서울, 북경, 시드니)에 해외 사무소를, 그리고, 지방지부로 60개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1993년 개설된 이래 한일 지방 자치체의 교류촉진, 지방 행정·재정에 관한 세미나 개최, 한일 지방 자치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일본 지방 자치체의 한국에서의 활동 지원, 한국 지방 자치제도와 관련된 연구, JET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지방 자치체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광역적 지방 자치단위로써 都道府県 47개, 기초적 지방 자치 단위로 市町村 3,029개와 특별구 2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시·도가 16개, 군이 234개 도합 250개의 지방자치체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일본 자치체의 최근 동향에서 두드러진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市町村 합병의 추진과 다른 하나는 지방 분권의 추진입니다. 市町村 합병에 대한 논의는 1888년 71,314개였던 市町村을 현재의 3100여 개로 줄여오는 과정이 있었으며, 앞으로 2005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市町村 합병특별법으로의 이행으로 市町村의 수를 2,869개로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 분권은 삼위일체개혁이라고도 불리 우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부담금 등의 개혁,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세금 원천 이동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자치체가 떠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정적인 압박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불황과 지역 경제의 정체에 따른 세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자치체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세수의 확보와 중앙정부에서의 세금 원천 이동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비율은 2003년 기준 19%에서 2050년에는 35.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점점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세수 감소와 함께, 고령자를 위한 복지 개선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자립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자립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산업, 문화, 관광 등의 진흥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 분권에 따른 지방의 권한과 책임 확대 등을 담당할 인재 육성 등이 현재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지방자치체의 자매도시 교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자치체는 2004년 4월 기준, 1,517개의 자매도시 제휴를 맺고 있으며, 상대국으로는 중국, 미국, 한국, 러시아, 브라질, 호주 등이 있습니다. 한일간에는 현재 106개 단체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으며, 그중 특징이 있는 몇 개 자매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한국)

- | | |
|-------------|--|
| 나라현 나라시 | - 경상북도 경주시 (1970년, 역사적 옛 유적지라는 공통점) |
| 미야자키현 난고촌 | - 충청북도 부여군 부여읍 (1991년, 백제와 관련 역사적 연결성) |
|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 - 경상북도 포항시 (1979년, 제철 산업이라는 공통점) |
| 사가현 신가라키쵸 | - 경기도 이천시 (1999년, 도자기 산업이라는 공통점) |
| 이바라키현 가시마시 | - 제주도 서귀포시 (2003, 월드컵 개최지라는 공통점) |

또한, 한일간에는 일본 지방자치체의 직원 약 40명이 현재 한국내에 체재, 근무 중인 것을 비롯, 다양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간 교류의 특징으로는 지리적인 이점과 역사적인 연관성 등을 기반으로 더욱 탄탄한 관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생활 습관, 문화, 지방자치제도 등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서 유사점이 많다는 점 등을 이용, 더욱 질 높은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 교류의 대표적인 예로써 일본의 돗토리현과 한국의 강원도 간 교류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도시간의 교류는 1819년 강원도의 상선이 난파하여 표류하던 중 돗토리번에 의해 구출되어 융성히 대접을 받고 목적지로 되돌아간 옛 기록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 졌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 다양한 층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체의 광역교류로는 일본,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39개 단체로 구성된 동북 아시아 지역 자치체 연합의 활동, 1992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일해안연안 현·시·도 시·교류회의의 개최, 1994년부터 개최되어 온 동북 아시아 지역 국제 교류·협력 지방 정부 회담,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 시사회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JET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JET 프로그램은 어학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초청 사업 (The Japanese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의 약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CLAIR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1987년부터 실시되어져 왔습니다. JET의 목적은 외국어 교육의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지역 레벨에서의 국제 교류를 통해 일본과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JET 프로그램은 CIR(국제교류원), SEA(스포츠 교류원), ALT(외국어지도조수)가 있으며, 전체 배치 인원은 2004년 현재 41개국, 6,103명으로, 일본 전역 2,144개 市町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국 출신 JET 참가인원은 2004년 67명 (CIR 55명, ALT 4명, SEA 8명)이며,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참가인원은 226명입니다. 또한, JET 프로그램 참가 종료 후에도 JETAA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일교류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간 교류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간의 교류는 국가 레벨과 다른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를 기초로 하여,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 내고,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교류가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가 대 국가의 1대 1의 통로가 아닌, 지역 대 지역, 사람 대 사람이라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좀 더 두텁고 흔들림 없는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